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harter rates for boxships in 'free-fall' amid pandemic pain

COVID-19사태가 야기한 수요 부진이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급락(free-fall)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주사들은 물동량의 반등을 기대하며 hot lay-up(운항이 가능한 상태로 짧은 기간 대기시키는 것)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됨. 용선료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됨. (TradeWinds)

타월 던지는 노후선 선주들 많을 것

탱커 시장에서 해상 비축 석유 재고가 줄어들면서 시황 강세가 수그러들면 선령이 높은 탱커 해체량이 늘어나면서 선주들은 선박 공극량 축소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도됨. 2021년에 유조선은 99척, PC는 76척까지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2022년에는 각각 252척과 197척이 해체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싱가포르 SembCorp 인력 2만명에서 850명으로 감소

싱가포르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SembCorp Marine의 근무 인력이 2만명에서 단 8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이로 인해 건조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6월 1일까지 지속된다고 보도됨. 전체 건조 작업은 연말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LNG플랜트 수주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2조 699억원 규모의 LNG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나이지리아 LNG Train 7사업의 EPC 원청 본계약체결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약 800만톤 규모의 LNG생산 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총 5조 1,811억원 규모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인도 늦춘다

COVID-19 여파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방위군(NZDF)용 군수지원함 인도가 미뤄졌다고 보도됨. 2016년에 선가 4,000억 원에 건조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1월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으며 이달 내 성능 테스트 마무리 한다고 보도됨. (글로벌이코노믹)

울산 현대건설기계, 군산에 '동지'

현대건설기계가 군산에 지게차 공장을 신설하고 지난 4일 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제품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기존 현대중공업 풍력발전전기공장을 활용한 덕분에 253억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지게차 라인을 신설했다고 보도됨. (전북일보)